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

2020. 8. 3.

가

## 컨소시엄 구성 및 조건 관련 질의응답

1. 금번 사업에 조건 중 '20년 인증제 신청업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청 준비만 하고 있어도 유효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3

- 올해 EMR 인증제 참여가 가능한 업체 및 의료기관을 컨소시엄의 자격조건으로 본다는 의미로,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 EMR 제품 및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2020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선정된 병원은 본 사업 공모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 표준화 사업은 1·2차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대상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EMR 제품을 개선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컨소시엄 구성에 제한됩니다.

3. 의원급 컨소시엄에서 의원 말고 병원급도 포함해서 확산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이 의원과 병원급 같이 사용하는 EMR업체인 경우예요.

 3

- 의원급 컨소시엄에 병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합니다. 단, 병원급에 맞는 EMR 인증제의 유형2를 획득해야 됩니다. 또한, 의원 개소 수의 지원금인 40만원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나

## 사업 내용 관련 질의응답

### 4. FHIR server는 public server를 활용하게 되나요?? 자체 server가 필요한가요??

 4

-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진료기록요약지(CRS)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감염병 신고 등 전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각 FHIR server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public server를 활용 시, EMR 제품과 연동 및 표준개발 사업 산출물의 FHIR 데이터 정의에 따른 데이터 생성 방법이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 5. 예상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표준화 지원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및 복지부와 협의 후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월 중에 게시될 공모안을 보면 확정된 사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자료협력 중 위기경보 발령 시에 생성된 의료데이터 제공 시 모든 의료데이터 인건가요?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0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20.3월)에 의거하여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서 진료기록을 보건당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된 과업으로, 모든 의료데이터가 아닌 복지부가 요청 시에 진료기록요약지(CRS)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 다 사업비 구성 관련 질의응답

7. 컨소시엄 사업 중 EMR 제품개선비(업체할당분)에 대한 하도급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꼭 자체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 표준화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뉴딜사업입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 자사의 기존인력 및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도급을 인건비로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관련자료 증빙 및 신규채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인력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라 선정평가 관련 질의응답

8. 심평원에 심사청구SW 인증 업체 조회는 해보고 사업진행하나요?

 0

- 의원급 컨소시엄의 선정기준에 있는 제품 확산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의 청구S/W를 활용하여 평가예정입니다.